

2017년 9월 13일, 한경면 산양리 산양리복지회관, 이효순 조사.
이창사(여, 1932년생, 한경면 산양리)

- 줄거리: 처가살이 하는 사위가 장인이 밤늦도록 일을 시키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. 사위는 피를 내어서 담 구멍에 줄을 매어 놓고, 장인이 앉았다 일어설 때 줄을 '웁'하고 당기기를 반복하였다. 장인은 너무 무서워서 다음날 사위에게 밤에 왁새귀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하소연하였다.

[조사자] 옛말이라도 좋수다게.

[제보자] 옛날 처가살이허난 밧디 가문 막 캄캄허도록 일 부러먹으난, 사위가 피를 낸 거라. 가시아방안티

“어둡도록 일허믄 왁새 구신 납니다예.”

허난

“무신 말이 그런 말이 잇나?”

허난, 경 해도 드러 일을 허난, 어두와도 갈 회계를 안 허난 쫄 썬 거라. 강 곱양에 가리석을 담고망에 꿰언.

이젠 일어나젠 허민 왁 허멍 팍 좁아덩기곡, 일어나젠 허민 왁 허멍 확 잡아 덩기곡, 오래오래 허연 이젠

“왁새 귀신 안 낫입디가?”

허난

“하이고, 하마 죽을 뻔허당 살아났저.”

경 허영 그것이 버릇을 7리첫덴. 그 가시아방이 하도 밤 됴도록 부러먹어가난 이젠 피를 냈덴 경 허연 가시아방안티 버릇을 7리첫덴. 그런 말 들었어. 우리 어린 때에.

- 핵심어: 가시아방(장인), 사위, 피, 왁새 귀신, 버릇, 처가살이